

지역 매아리

정읍시, 다문화가족 대상 롯데월드 놀이 여행 '호응'

정읍시가 13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가족 45명을 대상으로 롯데월드 놀이 여행을 진행했다.

놀이 여행에는 다문화가족 엄마와 방학을 맞은 초·중학생 자녀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놀이 여행은 롯데월드(대표이사 박동기)에서 자유이용권과 차량, 중식 등을 후원하고 지역 독지가가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등 나눔의 손길을 통해 마련됐다.

태국에서 온 한예지 씨는 "서울까지 나를 이틀 하려던 경제적 부담이 큰데 롯데월드에서 초청을 해 줘 고맙다"며 "특히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져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참여자들과 함께 2019~2020 정읍시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업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살맛 나는 정읍시 건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내소사 진입로 정비 명소화거리 조성 사업 실시

부안군은 진서면 석포리에 위치한 내소사 진입로 240m(양방향)를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가로수식재, 인도포장 등을 2019년 8월중 완료하여 내소사를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산책로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과 단종나무 식재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구간은 주차장에서 내소사 입구까지 국립공원 구역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진행했고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착수 1개월 만에 완료해 내소사를 찾는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보행편의 증진과 수려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7기에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다하고 내소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처음으로 반기는 진입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로수 및 꽃잔디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명소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고 수려한 내소사를 관광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부안예산 1조원 시대 위해”

한근호 부군수,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국회·중앙부처 찾아 발품행보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13일 국회와 여성가족부를 잇따라 방문해 부안군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날 한근호 부군수는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이춘석·유동수·안호영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국립 새만금박물관 건립, 부안군 가족센터 건립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안 백산 출신인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찾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한근호 부군수는 여성가족부 로 이동해 부안군에서 파견된 정춘수 과장과 이기철 주무관을 격려하고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과 김



한근호 부안부군수가 13일 국회와 여성가족부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행정을 펼쳤다.

민아 가족정책과장 등을 만나 부안 가족센터 건립 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중앙부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타당성 있는 논리개발은 물론 지역민의 염원을 중앙부처에 잘 전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여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경기 김포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로컬푸드 고창 명품관을 개관하고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고창의 청정 농특산물, 수도권 소비자 입맛 집중 공략

김포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고창 명품관 개관... 관내 23개 업체 참여

고창의 명품 농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다.

고창군은 경기 김포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로컬푸드 고창 명품관을 개관하고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고창 명품관이 운영되는 김포농협은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김포시민은 물론, 인근지역의 고창, 부천, 인천 등의 도시민들도 신선하고 맛있는 고창의 특산품을 찾는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품관 규모는 2층 면적 중 약 48㎡(약14평)으로 해리농협, 사립당푸드 등 관내 23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박과 멜론 등 제철 농산물은 물론, 복분자 가공품 등 고창의 여러 가지 우수 농특산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고창 명품관 운영을 위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명품고창에서는 향후 고창 농특산물 홍보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판촉 및 체험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개장 행사에는 유기상 고

창군수와 김포시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방문해 개관을 축하하고 전시된 고창 농특산물을 둘러봤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청정 고창의 신선하고 맛있는 농특산물을 알릴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대도시 직매장 개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관여 농가 및 업체 참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2개 마을 선정

산림청이 주관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 정읍지역 2개 마을(오동면 수암마을, 감곡면 통사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은 산불 취약지역으로 마을주민 모두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 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에 동참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마을 회의와 캠페인 등을 통해 소각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과 자체적인 산불감시, 산림 내 농업 부산물 수거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선정된 2개 마을에서 각각 현판식을 갖고 주민들의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수상 영예를 축하했다.

관련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규제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대표자 중심으로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 "한빛1호기 재가동 반대"

지난 7월 30일 구성된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조상중, 이복형, 정상삼, 이상길, 정상철, 기시재, 김중희, 김은주 의원)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한빛1호기 열충력 폭발사고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조작미숙과 절차 및 메뉴얼 미 준수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규정 하면서 재발방지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가 9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읍시민과 나아가 호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정읍시민을 포함해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향후 원전 사고시 대처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제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해, 9월 3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후 특별위원회로 활동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는 8월 19일 오전 정읍시의회에서 광주, 전북, 고창, 정읍 지역 시민단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특위로 전환해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와 각 지역 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호남지역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해 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본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신규자동차 번호판 앞 숫자 3자리로 변경

정읍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신규자동차 번호판이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번호판 앞 숫자 2자리에서 3자리로)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용)와 대여사업용(렌트카) 승용차다. 다만 일반사업용(택시)과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변경되는 번호판은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과 앞 숫자 추가와 함께 태극문양과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도 추가된

'필름식 번호판'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2019년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난 속, 방방 카메라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차량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 이달 중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하도록 독려 중이다"면서 "신규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내용을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병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병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